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플러스

보건복지부 | 보도참고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. 11. 26.(목)

지역·필수·공공의료 강화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협력 방안 논의

- 2026 공공보건의료 CEO 포럼 개최(11.26.) -

- 국립대학병원,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기관장 45명 참석 -

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**11월 26일(목)** 오후 1시 30분, 포시즌스 호텔(서울 종로구)에서 **'2026 공공보건의료 CEO 포럼'**을 **개최**하여 **공공보건의료 기관장들**과 **지역·필수·공공의료 강화**를 위한 **정책 방향을 공유**하고, **공공보건의료기관**의 **역할과 발전방안을 논의**하였다.

이번 포럼은 **정부**가 **추진**하는 **지역·필수·공공의료 강화 정책**에 대한 **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이해를 높이고**, **기관별 역할 정립**과 **협력체계 구축**을 위해 마련되었다.

이날 행사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해 국립대학병원, 범부처 국립병원,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장 45명이 참석하였다.

이날 포럼에서 **이형훈 제2차관**은 **지역·필수·공공의료 강화**를 위한 **정부의 정책 방향**을 설명하고, 현장의 **애로사항을 청취**하였다.

이어 **김지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**이 ▲보험자 관점에서 바라본 **지역·필수·공공의료와 건강보험의 역할**, **김영완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**이 ▲지역의료 위기 대응을 위한 **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방안**, **김종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**이 ▲원격중환자실(e-ICU)을 통한 **지역 중환자 진료 연계 방안을 주제로 발표**하였다.

이형훈 제2차관은 “국민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때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라며, “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<붙임> 「2026년 공공보건의료 CEO 포럼」 포스터

담당 부서	공공의료정책관 공공의료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백형기 (044-202-2530)
		담당자	사무관	조미라 (044-202-2540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「2026년 공공보건의료 CEO 포럼」 포스터

